

“자선냄비에 사랑을 담아 주세요”

6년째 광주서 구세군 활동 이기풍 사관

“올해는 공동모금회 비리 사건으로 모금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1000원씩이라도 자선냄비에 넣어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구세군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1일 광주 총장로 우체국 앞 시종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길 위 모금활동에 나섰다.

6년째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이기풍(55) 사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광주사람의 ‘정’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관은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가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구세군도 생명, 희생, 나눔 정신을 실천해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모금회의 비리와

관련 구세군은 그 어느 단체보다 모금과 사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구세군 체계상 모금을 하는 흥보부, 자금관리를 하는 재무부, 모든 성금을 배분하는 사회복지부가 서로 견제·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해 매년 결산내용을 검증하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광주구세군의 올 목표모금액은 4000만원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자선냄비는 총장로 우체국 앞과 메가박스 사거리 2곳 외에도 금남로 2가 버스정류장 앞(무인 자선냄비)

에 설치되어 있고,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서의 모금도 조금씩 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관은 “자선냄비 모금은 빈부격차,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캠페인”이라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믿음 모금액 배분도 어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강조했다.

광주구세군교회는 뜻을 모아 모금활동을 펼칠 자원봉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광주에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한 실정. 자선냄비를 운용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사관은 “따뜻한 마음, 봉사의 뜻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세군의 거리모금은 24일 자정까지 실시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62-362-919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혜자 LA 영화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



배우 김혜자씨가 영화 ‘마더’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영화비평가협회(LAFCA)의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AFCA는 12일 감씨를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제36회 영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마더’는 최우수 외국영화상 2등상(Runner-Up)도 수상했다.

‘마더’는 지난해 작품이지만 미국에서는 올해 개봉됐다. 한국 영화계 관계자는 “우리 배우가 영향력 있는 단체인 LAFCA의 상을 받기는 처음으로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中총영사-한중문화협회 ‘친선의 밤’



엔평란(閻鳳蘭)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한중문화협회 광주시회(회장 송동석)와 함께 17일 오후 6시부터 광주홀리데이인 호텔 연회장에서 ‘한중친선의 밤’을 갖는다.

고석태 박사 조선대 명예교수회장에



조선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한 고석태 박사가 최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회장에 선임됐다.

총무는 송기동 전 자연대학 학장, 재무는 김희남 전 교무처장이 지명됐다.

연극인 박윤모씨 대신고서 강연



30년 연극 외길인생을 걸어온 연극인 박윤모(56)씨가 14일 오전 11시 광주대신고등학교 3층 시장각실에서 ‘연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박씨는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에게 그의 연극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전주온누리교회 장창록씨

광신대 가스펠 찬양대회 ‘대상’



광신대학교(총장 정규남)가 주최한 ‘제2회 가스펠 찬양대회(praise festival)’가 지난 11일 오후 대학 은혜관 3층 대예배실에서 15개 본선 진출팀과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상은 전주온누리교회 장창록(곡명 예수 그리스도)씨가 수상했다. 솔로부문에서 ▲금상은 정은송(송정중앙교회, 곡명 Lord in my heart)씨▲ 은상은 정경상(목포복음교회, Sweet Love)씨 ▲동상은 김정화(DFC 제자들선교회, O, Lord)씨가 차지했다. 그

룹부문에서는 ▲금상 ASK(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눈물) ▲은상 Flow-down(같이 걷기) ▲동상 PRIDE BAND(Thank you) 등이다.

대상 300만원, 그룹·솔로 부문별 금상 각 100만원, 은상 각 50만원, 동상 각 2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입상자가 고교3년 수험생인 경우, 대상수상자에게 2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 입상자에게는 상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중·일고 동문 송년의 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회장 김종일)는 13일 밤 광주시 북구 교보빌딩 10층에서 ‘2010년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광주일보사 유제철 사장(40회)을 비롯 장병완 국회의원(41

회), 정갑주 광주고등법원장·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이상 48회) 등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문들은 모금한 장학금 2600여만원을 동창장학회에 기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우야, 난치병 함께 이겨내자”

광주자연과학고, 마르팡 증후군 학생돕기 성금

광주자연과학고 학생들이 난치병에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 돋기애에 나섰다.

13일 광주자연과학고(교장 임정희)에 따르면 최근 ‘마르팡 증후군(신천성 발육이상 질환)’으로 투병중인 임모(18)양

를 돋기 위해 교직원·학생들이 모은 성금 500여만원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현재 고 3인 임양은 초등 5학년 때부터 척추가 S자 형태로 휘어지는 척추측만증과 뼈, 심장질환 등 복합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고 인공호흡장치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그동안 구두수선으로 생계를 꾸리고 병원비까지 충당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임양이 딱한 처지에 놓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 교직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았다. 같은 반 친구들은 쾌유를 비는 편지를 보내 위로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임양의 부모는 뜻하지 않은 도움에 눈물을 먹혔다고 한다.

임정희 교장은 “병마에 굽하지 않고 끗짓이 싸워나가는 임양을 보고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감동했다”며 “임양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서광주 산타우체국으로 오세요”



서광주우체국이 연말까지 ‘사랑의 산타우체국’으로 변신해 유치원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광주우체국은 이어 오는 20일 산

타집배원 20여 명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에게 보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거리 페레이드도 펼친다.

21~22일에는 산타와 사진찍기, 풍선 나눠주기도 한다. /김경인기자 kki@

부음

▲김종술씨 별세 연수(정우환경 기술·정우엔텍 연구소 대표이사)·영숙씨 부친상=발인 14일(화)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임종례씨 별세 오진호(전 향만 뮤류협회 사무국장)·진양(전 대농 상무)·진(육군대령)·정숙·단님(나주 중앙초 교사)·현숙·혜숙씨 모친상 이정백(MRC 사장)씨 빙모상=발인 14일(화) 광주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강대찬씨 별세 승원(문화중학교)·양숙(코마코미디언이사이트)·기남(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차장)·미숙씨 부친상 이경식(사업)씨 빙부상 이여옥(나주여고 교사)·김은하(예스통증의원 원장)씨 시부상=발인 14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062-231-8902.

▲기광숙씨 별세 김형장·형운·향순·한자·향례·순례·명숙·연숙·연자·명옥·연옥씨 모친상=발인 14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謹 삼가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故 임봉민 님(남/56세)

未亡人: 정성희

子 : 임태경

女 : 임혜진

• 호실402호 • 발인: 12월 15일 • 장지: 나주 승조관

故 유태임 님(여/86세)

子/孙 : 김용선·김정애

孫/婦 : 김진선·오진희, 수현

• 호실101호 • 발인: 12월 14일 • 장지: 임실군 흥국공원

故 이성준 님(남/78세)

子/孙 : 이종기·정현경, 경렬·이우민

女 / 婦 : 이승미 · 윤경숙

• 호실401호 • 발인: 12월 14일 • 장지: 임실군 흥국공원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故 이근창 님(남/82세)

子/子婦 : 이정현·송정자, 혈로·차경자, 삼복

女 / 婦 : 이현주·김은숙, 윤경·김수영

• 호실301호 • 발인: 12월 14일 • 장지: 나주봉황

故 이성준 님(남/78세)

子/孙 : 이종미·정현경, 경렬·이우민

女 / 婦 : 이승미 · 윤경숙

• 호실401호 • 발인: 12월 14일 • 장지: 임실군 흥국공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이운성·상훈·창규 씨 부친상 최복규·이한 영민 씨 빙모상=발인: 12월 15일(수) 09시00분 연락처: 250-4412

▲이동화·천의·석의 씨 모친상=발인: 12월 14일(화) 00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3

▲김연수 씨 부친상=발인: 12월 14일(화) 09시00분 장지: 북성

시·오남석

• 연락처: 250-44107

▲김우진·이도진 씨 모친상=발인: 12월 14일(화) 09시00분 장지: 북성

연락처: 250-4409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